
통계분류 뉴스레터

2019-1호(통권 18호)

2019. 6.



통계청

통계기준과



이용자를 위하여

-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분류를 기초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7종의 표준분류를 비롯하여 총 33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국내·외 통계분류의 개발 및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통계분류 수요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유엔 및 국제기구,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 관련 기관의 동향, 그리고 관련 기고문 등 통계분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통계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계분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동 뉴스레터에 분류와 관련된 기고문 게재를 희망하거나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042) 481-2566, 36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http://kssc.kostat.go.kr>

• • • | 목 차 | • • •

- 1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자지출분류(COICOP-K) 개정 추진
- 2 2019년 WHO-FIC 연중회의 참가 결과
- 3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및 국내 도입 계획
- 4 여성부와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
- 5 알쏭달쏭 분류사례
- 6 2019년 하반기 주요 일정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추진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는 유엔통계처(UNSD)가 권고한 표준목적별 지출분류 중 가계의 개별소비지출을 구분한 분류체계이다.

* COICOP-K: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이와 같은 COICOP-K는 UNSD COICOP 1999에 기초하여 2008년에 한국표준분류로 제정되었고 지난 11년간 개정작업 없이 국민계정체계(SNA),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등 다양한 소비지출 관련 통계 작성에 활용되어 왔다.

COICOP-K 개정작업은 UNSD가 2011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18년에 최종 COICOP 2018 분류체계를 회원국들에 승인·권고함에 따라 국내 반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통계작성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4회, 대내외 전문가 심의회의 3회 실시 등을 통해 초안, 조정안, 잠정안을 마련하였고 국가통계위원회 상정을 거쳐 최종안에 대한 고시작업을 준비 중이다.

< COICOP-K 제1차 개정작업 추진 과정 >

기본계획 수립 2017년	조정안 마련 2018년	잠정안 마련 2019년 1~6월	고시, 활용지원 2019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기본계획 수립 ('17.4.) • 개정 초안 마련 ('17.5.) • 1차 의견수렴 실시 ('1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조정안 마련 ('18.5.) • 2차 의견수렴 실시 ('18.5.~6.) • 2차 조정안 마련 ('18.10.) • 3차 의견수렴 실시 ('18.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조정안 마련 ('19.4.) • 4차 의견수렴 실시 ('19.4.) • 개정 잠정안 마련 ('19.5.) • 국정위 상정 ('19.5.) • 통계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분류 고시 ('19.7.1.) • 분류 활용 지원 ('19.7.~) • 개정분류 시행 ('20.1.)

COICOP-K 제1차 개정분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분류구조가 기존의 세분류(4digit) 체계에서 세세분류(5digit) 체계로 변경되어 보다 상세한 분류체계로 변화하였으며, 기존의 '기타 상품 및 서비스(12)' 중분류는 '보험 및 금융서비스(12)'와 '개인 미용, 사회보장 및 기타 상품(13)' 중분류로 세분되었다.

< COICOP-K 개정 전후 분류체계 변화 >

중분류(2dig.)		소분류(3dig.)		세분류(4dig.)		세세분류(5di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4	15	58	63	158	188	(신설)	353
-	+1	-	+5	-	+30	-	-

다음으로, 중분류별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01)'에서 조리식품, 유아식품, 음식료품 가공 서비스 등 큰 폭의 세분이 있었으며, 정보처리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오락·스포츠·문화(09)'에서 '정보통신(08)'으로 이동하였다. '교육 서비스(10)'에서는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 교습을 초중등교육과 성인교육으로 세분하였다.

< COICOP-K 주요 중분류별 개정 특징 >

중분류	개정 특징
0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 조리식품, 유아식품, 커피·차·생수·청량음료, 음식료품 가공 서비스 등 대폭 세분
06 보건	▪ 세계보건기구(WHO) 제안으로 소분류 및 세분류 체계를 전면 재설계(세분류 7개 → 11개)
08 정보 통신	▪ 이동 및 고정통신 기기·서비스 등 세분 ▪ 정보처리장비, 소프트웨어 등 중분류 이동(09 → 08)
09 오락, 스포츠 및 문화	▪ ICT 및 콘텐츠 혁신, 회원국 의견수렴을 반영해 소분류, 세분류 체계를 전면 재설계(세분류 21개 → 24개)
10 교육 서비스	▪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초중등교육과 성인교육으로 세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약 11년만에 개정되는 COICOP-K 제1차 개정 분류는 7월 1일에 관보 고시 이후, 금년 12월에 최종 해설서 발간, 2020년 1월에 개정분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의 3대 국제보건분류¹⁾ 개발·개정을 위한 국제회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통계작성을 통한 국제 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3대 국제보건분류를 개발·운영 중이며, 신규 분류체계인 국제건강행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ICHI)의 개발완료를 목표(2020년 공표)로 3대 국제보건분류를 완성하고 기존 분류(질병·사인분류(ICD), 기능·장애·건강분류(ICF))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WHO-FIC은 WHO에서 보건분류(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IC)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 회원국과 의견을 교류하여 국제보건분류의 제·개정 및 운영·교육 등에 관련된 위원회별 소규모의 연중회의와 국제보건분류 총회의 개념인 대규모의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 건강행위분류 개발그룹 연중회의

국제건강행위분류(ICHI)의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약 5일간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된 ICHI 개발그룹(Development Group) 연중회의는 개발 완료 전에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작성 적합성 등의 국가별 사전 평가를 목적으로 현장시험에 대한 단계별 수행내용과 사용 도구에 대해 논의·결정하는 중요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통계청은 회의에 참석하여 전년에 ICHI 개발그룹의 요청으로 수행한 1차 현장시험 결과와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경과 현황 발표와 ICHI 개발그룹에서 고민 중인 전통건강행위분류에 대한 편입 방안 등의 의견 개진을 통해 거버넌스와 사용자 측면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의진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올해 WHO의 ICHI 개발 관련 현장시험의 동참 요청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1) WHO 국제보건분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참조분류로 명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질병·사인분류(ICD),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이상 3개 분류로 구성됨

□ 사망통계자문그룹 연중회의

올해 세계보건총회의 승인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의 전환으로 인한 사망원인통계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한 사망통계자문그룹의 연중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분류체계인 ICD-11의 사망통계작성과 관련된 지침서의 수정과 보완, 사망통계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 등이 논의되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통계 공표 및 관련 지침서의 작성·고시 주관부처인 통계청에서 참석하여 ICD-11의 사망통계 작성 지침의 최신버전을 확인하고, 국가의 중요한 보건지표인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원인 선정지침의 변경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망원인통계의 안정성 유지 및 국제 비교성 향상을 위한 원칙과 지침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국제회의에서의 활동과 정보 수집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 및 지속성 유지와 동시에, 국제기준의 준수를 통한 국제비교성을 위해 사망진단서의 양식 변경 등 ICD-11 전환 준비를 위한 관련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이다.

□ 기능·장애자문그룹 연중회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개발과 활용 논의를 위해 2019년 WHO-FIC 기능장애자문그룹의 연중회의가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에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부터 개발 중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영어 버전이 개발 완료되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 적용 예정임에 따라 통계청은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프로토콜 등의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또한, ICF와 ICD-11간 연계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통계청에서 제출한 ICF 코드 신설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연례회의 (10월, 캐나다 밴프)에서 반영을 목표로 향후 관련 전문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안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 분류체계발전위원회 연중회의

WHO의 3대 국제보건분류의 개발·운영을 위한 WHO-FIC 분류체계발전위원회가 4월 9일부터 2일간 이탈리아 코네글리아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보건총회의 ICD-11 승인과 ICHI의 개발 완료를 앞두고 3대 보건분류의 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단일 콘텐츠의 마련에 대한 그룹토의와 ICHI의 현장시험 수행을 위한 최종적인 점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통계청은 올해 처음 시도된 3대 보건분류의 단일 콘텐츠 모델 구축과 3대 보건분류의 동시 적용을 통한 연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연계를 위한 신규 작업그룹에 지원하는 한편, 국가별 ICHI 현장시험 수행 기관임을 알렸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WHO의 ICHI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3대 보건분류의 단일 콘텐츠 마련을 위한 작업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분류 발전에 기여와 함께 국내분류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고용통계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종사상 지위²⁾에 대한 국제기준이 25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8년 10월,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ICLS)³⁾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⁴⁾의 개정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은 분류 범위, 구조, 항목, 기준 등을 대폭 변경한 전면 개정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첫째,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 포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Gig 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 및 관계가 등장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워크(crowd work)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노동관계에 대한 분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비정형(non-standard) 고용 형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국제 비교 가능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종속적 자기 고용(dependent self-employment), 프로젝트 단위 계약 근로자 등 노동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 계층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경계에 있는 종사상 지위에 대한 분류를 신설함으로써 두 특성이 혼재된 중간지대 근로자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인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고용주나 국내 특수형태근로자가 속하는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유급 인턴 등이 대표적이다.

2) 종사상지위분류란 개인이 어떤 직업에서 다른 사람 또는 기관과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에 대한 통계작성 목적의 분류체계이다.

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분류 대상이 취업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자가 사용 생산노동, 자원봉사활동, 무급실습 노동, 무급의무노동 등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을 위해 수행하지 않는 노동은 제외되었다. 분류 구조 측면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는 단일 위계 구조에서 지휘권한 유형에 따라 독립 노동자와 종속 노동자로, 경제적 위험 유형에 따라 이윤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로 분류하는 복수위계 구조로 변화하였다.

분류 항목 수는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종속적 계약자, 법인 소유 경영자, 유급 인턴이 신설되었으며, 고용주와 자영자는 사업체 특성에 따라 법인 및 비법인(가내 사업체)으로 세분되었다. 임금 근로자도 고용계약 기간 등 특성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3개월 이상),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유급 인턴의 4개 항목으로 세분되었다. 한편, 생산자협동조합원과 기타(분류되지 않는 근로자) 항목은 삭제되고, 이들은 각각 고용특성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분류한다.

한편, 고용주 판단 기준과 무급 가족 종사자의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1인 이상 고용한 경우'는 '조사기준기간 1인 이상을 직전 3주 중 2주간 이상 고용한 경우'로 특정되었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기존 동일가구 내 가족 소유 사업체의 일을 돕는 경우에서 동일 가구가 아닌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와 임금 근로자인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ILO는 이번 개정 결의안을 기초로 데이터 수집 지침서, 노동 관계 통계의 개념 체계 등의 부속문서를 통해 개정 기준, 배경, 정의, 근거 등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각 국가에 제공하고, 국제표준분류의 국가별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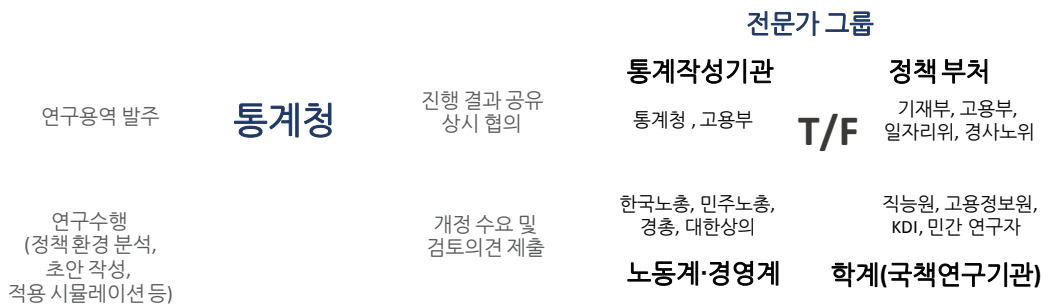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일정(안)>



이에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제 분류 개정 후속조치로 2008년 일반 분류로 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제 분류를 기초로 국내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최적화된 분류 마련을 목표로 정책 기반 연구 및 시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노동계·경영계·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개정 전반을 논의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정 분류의 탄탄한 이론적·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적합성 및 합의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국내 고용노동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체계>



통계청(청장 강신욱)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5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통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이 후원하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젠더폭력 범죄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의미 있는 정책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범죄 발생 증가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욕구에 대응하는 통계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윤덕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대상 범죄통계의 현황 및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등 신종 범죄관련 통계생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명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해외와 우리나라 여성폭력 수집·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범죄유형 분류체계 개선 등 여성폭력 범죄통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최경순 서기관은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요인은 기관별로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강수진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1366센터협의회)이 참석하여 여성폭력과 범죄통계 개선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성폭력 등 범죄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범죄분류 개발 과제의 추진동력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범죄통계 발전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장님 환영사>



<세미나 발표·토론자 기념사진>



I 산업분류

Q1. 낙농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생우유를 생산하고 직접 가공하여 액상 시유 등 낙농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농업으로 분류 가능한지?

- 단일 사업체(농장,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며,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종사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산업활동을 결정함

* (수직적 결합 산업활동 예시) 생우유를 생산하여 가공우유 등 낙농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단을 생산하여 의복을 생산하는 경우 등

- 우유생산 목적으로 젖소를 사육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고, 수직적 결합 생산공정을 통한 액상시유 등 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이 부차적 산업활동인 경우 '01211 젖소사육업(농업)'으로 분류

- 경영주체는 동일하더라도 단일 사업체가 아닌 전문화된 별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축산업과 가공우유 등 낙농품 제조활동을 각각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별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Q2.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반입하여 자갈(석쇄)로 파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디로 분류되는지?

- 채굴 및 채취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구입 및 계약 등으로 입고하여 파쇄·분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제조업)'으로 분류
- 채굴 및 채취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파쇄·분쇄 등 결합 생산공정을 거쳐 쇄석 및 석분을 생산(파쇄골재 등)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광업)'으로 분류

II 직업분류

Q1.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의 직업분류는?

- 음식점에서 현업을 하지 않고 80% 이상을 순수하게 관리 업무만 한다면 1522(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로 분류하고, 현업에 종사한다면 실제로 하는 주된 직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즉, 음식점에서 주로 조리를 담당하면 441(조리사)로, 음식 값을 받는다면 52141(매장 계산원)로, 홀서빙을 담당하면 442(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합니다.

Q2. 학교 행정 사무원의 직업분류는?

- 학교 행정 사무원은 하는 일에 따라 회계, 구매, 인사 사무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일 학사, 교무 등의 일반적인 교육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국공립학교 소속의 행정 사무원은 31141(국가행정 사무원)로 분류하고, 사립학교 소속의 행정 사무원은 31271(총무 사무원)로 분류합니다.

III 질병분류

Q1. 수술동의서나 마취동의서의 작성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 간에 관련성이 있나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Y83-Y84'의 수록 문구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의 의미는 '처치 도중에 발생한 재난이

아니고, 처치 이후에 발생한’ 즉,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 이 ‘Y83-Y84’ 부호의 적용을 위해서는 의사에 의해 진단되고, 처치 후 이상반응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의 종류에 대한 정보 등이 의무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료행위 전 동의서에 합병증의 발생에 관한 내용 작성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에 의해 결정된 최종진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Q2 고혈압이 있던 상태에서 임신이 된 경우에는 고혈압의 부호가 바뀌어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작성의 중요성으로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처한 상태(예: 임신, 연령, 사고 등) 등에 따라 구분된 대분류장에서 부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계작성의 중요성으로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처한 상태 등에 따라 대분류장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국가보건수준의 척도인 모자보건관련 통계작성의 중요성으로 임신, 출산과 산후기, 신생아의 경우 별도의 대분류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대분류장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 이에, 임신상태이고 임신 이전에 진단받은 동일한 형태의 고혈압이 이어진 것으로 진단된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표적인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전)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임신상태) O10.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본태성 고혈압

6

2019년 하반기 주요 일정

월	주요 일정(담당)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제1차 개정 관보 고시(산업팀) • 국가 통계분류 개발 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산업팀) • 한국재화 및 서비스 분류(KCPC)·용도분류(BEC) 개정 해설서 발간(산업팀) • 한국표준교육분류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사회팀) • KCD 개정 심의위원회(보건팀)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특수분류 2종(공간정보산업, 물류산업) 개정안 작성(산업팀) •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기준팀)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특수분류 2종(공간정보산업, 물류산업)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개정 완료(산업팀) • UNSD 국제통계분류 전문가 회의 참석(예정, 사회팀) • 한국중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 제3차 회의(사회팀)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류 개발수요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개최(산업팀) • 한국중사상지위분류 개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회팀) • 한국중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사회팀) • 2019 WHO-FIC 연례회의 참석(보건팀)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특수분류 4종(로봇, 콘텐츠, 공간정보, 물류산업) 개정 최종 결과 보고(산업팀) • 한국중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 제4차 회의(사회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활용 정규교육(보건팀) • 제5회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약 100여명 예정, 보건팀) •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사회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최종 해설서 발간(산업팀) • 국가 통계분류 개발 계획 마련(산업팀) • 제5기 사회분류 자문위원회 회의(사회팀)